

여름불교학교 의견 나뉨
부산 어린이지도자 연수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3일 합지골수련원에서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금련사, 통도사부산포교원, 관음사를 비롯한 지도교사 9십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 불교학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법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한 선재동자 구법기, 역할극 공연, 찬불가, 우리가락, 우리춤사위, 심성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 덕진님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선에서 어린 새싹을 키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축 연등축제 결산·시상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3일 52차 이사회를 열고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민연등축제 결산보고를 갖고 감사패와 봉축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중명불원, 범어사, 한마음선원, 삼광사 등 10개사찰과 부산불교교육대학의 3개의 신형단체, 대한불교 부산지구 청년부, 감도사, 동명불원, 대불련 등이 봉축상을 수상했다.

반아심경 강해 법회
통도사 부산 포교원

6일 젊은 불자들의 관심속에 반아심경강해 법회가 열렸다. 통도사부산포교원의 심경청년회가 주최한 이날 법회는 통도사에 주석종인 호명스님을 법사로 청빙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주관음사 문화도량으로 중창



◇제주 관음사는 2일 문화시설 조성의 청사진을 설계할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가 지역 불교를 상징하는 대규모 문화시설로 새롭게 중창된다. 관음사 문화관광지 조성 및 성역화 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문인중)는 2일 제주 KAL호텔 2층 연회장에서 불자와 도민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갖고 관음사 중창불사에 범도민과 불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관음사는 내달중에 중창불사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등을 2차례 가진 뒤 1천명 내외의 불교 및 지역인사들이 참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새천년의 문화유산'을 모토로 한 불교 및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의 관음사 중창 청사진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용성스님 탄생·출가지 인연 기리자”
전북 장수-경남 합천군 결연

용성스님의 탄생지 전북 장수군과 출가지 경남 합천군은 6월 29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양군의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및 각급기관장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장수군 법안면 죽림리에서 탄생해 독립운동을 이루었고 3·1독립선언 불교계 대표로 참여 독립운동을 주도한 백용성 진종조사가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민족의 큰 인물이 된 것을 양군이 함께 기념해 앞으로 사회, 경제, 문화·예술, 체육, 행정등 각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화합의 한마당을 갖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 시켜나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수군과 합천군은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의 발굴 실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동서화합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도민 1천여명 성역화 추진위 구성
역사관·자연관·문화원·공연장 건립

이로써 조계종 제23교구본사인 관음사는 본사다운 사격(寺格)을 지니게 되고, 대가람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던 '고려시대 관음사'의 명맥을 잇게 됐다. 또 지역 포교를 위해 대형 미륵불상과 천불상을 조성하고, 불교대학과 문화원, 강당, 요사채 등 포교시설과 불교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남달당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제주도 설화속의 여신인 설문대할망 재현도 들어있다. 제주도 지형을 형상화한 2천여평의 대형 연못을 조성하여 가운데 연화좌대를 설치하고 15~20m 크기의 설문대할망상을 조성하여 설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다는 것. 설문대할망의 몸체에 5백여명의 동남동녀를 조각하여 오욕질정을 표현하고 동서남북에 4개의 다리를 연결, 생로병사의 사(四苦)를 해탈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주변에는 탐라역사관을 설치해 제주향토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향토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원장으로 가꾸기 위해 전통혼례예식장 건립과 제주자연전시관 조성, 향토문화 공연장과 전시관이 잇따라 추진된다. 관음사주지 중원스님은 "새 시대를 위한 천년유산을 남기려는 염원의 발로에서 제주상징 불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관음사를 제주 문화와 역사창조, 그리고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의형과 내용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하고 제주불교 대가람 중창사업에 도민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kim@buddhapia.com)

기독교단체 반대한 영광 불교도래지 성역화
지역단체 30여곳 “찬성”

영광군이 추진중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사업과 관련 기독교 단체의 반발(본지 228호 22면 참조)에 대해 지역 30여개 사회단체들이 군의 사업추진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영광군내 30여개 군 단위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광군사회단체협의회는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독교에서 사업을 잘못 이해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영광의 미래를 위해 사업을 협조하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

우리절 불사 부산 소림사



◇소림사는 불교포교를 위해 지하2층 지상2층 총건평 9백평의 대웅전및 시민선방 불사를 진행중이다.

새싹·청년단체 신형 ‘보금자리’

대웅전·시민선방 개축 독서실 어린이집등 운영 지고 인근 주택에서 1년 가까이 반대를 벌이고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를 또다시 시공사가 부도를 냈다. 정일스님은 "그간의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그때도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 가피"라고 강조했다. 사고이후 정일스님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 10층 높이의 빌딩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불사를 한다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로 알뜰한 불사를 하고 있다. 차고와 공양간과 법회장을 겸한 지하층과 1층에는 스님들의 거처와 시민선방, 3층에는 대웅전이 들어서게 되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사의 공덕을 회향하기 위한 문화행사, 각종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해오다 불사로 중단된 어린이집, 독서실등 편의시설을 재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사찰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 정일스님은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면 부처님은 꼭 대가를 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기와 한 장이라도 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6·25때 질 지킨 법흥결사대 천도재

법흥사 48년만에...충녕선원 복원키로 6.25 전쟁때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주지 도완)를 지키기 위해 스님들과 지역민 27명으로 구성되어 활약했던 법흥결사대. 지역과 법흥사 수호를 위해 싸우다 인민군에 의해 18명이 집단으로 처형돼 암매장된 법흥결사대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가 48년 만에 법흥사에서 처음으로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사자산 법흥사는 8일 천진조 자장승사와 사자산촌 흥녕선원 개신조 절충국사의 위덕을 기리고 법흥결사대를 비롯 사자산 인근에 암매장당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천도재를 입재. 8월 25일 우란분절날 회향한다. 이번 천도재는 지난 6월 법흥결사대가 처형돼 암장된 승장골을 처음으로 찾아 낸 뒤 갖는 천도재에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법흥결사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왔다가 법흥사 역사를 정리해온 주지 도완스님의 노력으로 그 실체와 활약상이 밝혀졌고 결사대원인 이명준씨 등 3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흥사는 최근 사자산촌 개신조 절충국사(826~900)의 부도탑을 새로 보수하고 이날 재도 함께 봉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법흥사는 사자산 각 혈에 암장 또는 매장된 시신들을 이장하고 2001년 10월까지 민족번영과 선행공종의 분원사찰로 복원하는 대규모 불사를 하고 있다. 법흥사는 새로운 세기 인류문명을 이끌어갈 대인인 선(禪)의 확산을 위해 흥녕선원을 복원, 선종진작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영월=김원우 기자

말기암·중환자 전문 진료소
광주 한마음 호스피스 개원

말기암과 중환자들을 위한 한마음 호스피스(대표 이장국)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3일 빛고을정례예식장에 개원한 한마음 호스피스는 25개 병실에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등 7명의 직원을 갖추고 환자 및 가족들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마음 호스피스 이장국 대표는 "불자들이 모인만큼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중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불교의 사회적 이상 실천을 위해 영리를 떠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문의 062) 225-2444. 주용직 광주지사장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관 황장.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 衆生度盡 方證菩提. 地獄未空 誓不成佛.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 지장선원에서 신라 고승으로 중국 구화산에서 75년 수행하신 후 구화산 최초의 등신불로 화현하신 김교각 탄신 120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1999년 9월9일 9시9분에 99M 지장동상건립 착공식 및 기념대법회에 참석하실 불자들을 아래와 같이 선착순 000명을 모집하오니 접수바랍니다. 육신보전 지장기도 한·중 합동 조상 천도제 봉행 구화성지(화성사·백세궁 고배경대 천태봉 참배). △ 중국 구화산 법회 일시: 1999년 9월 9일 오전 9시 9분(음력 7월 30일) △ 출발일시: 1999년 9월7일 오전 9시 출발 9월 10일 귀국(3박4일) △ 출발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1층2층 △ 법회참석 왕복비: 680,000원 △ 접수마감: 1999년 7월 30일 △ 주 최: 중국구화산육신보전한국포교원 지장선원 △ 후 원: 중국 구화산 불교법회 중국구화산 지장성지 순례전문 원나루여행사(원연화심·이자명주) △ 접수처: 원나루 여행사 TEL: (02)722-3901~5, (02)738-5781 FAX: (02)722-3904.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중국구화산 육신보전 한국 포교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 ☎ 0343)444-5935~6 Fax: 444-5655. 회주 박세민 주지 석현호